

어두운 터널 끝,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

사학과 김○○ (2022. 졸업예정)

기본 스펙	평균 평점	3.5
	외국어 성적	JLPT1급
대학 생활 내용	인턴 또는 현장실습	일본 오사카 호텔 인턴 1년
	봉사활동	대학봉사 수업 한 학기, 지역봉사, 환경봉사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서비스업- 카페1년, 백화점판매직1년

<생활습관>

저는 2021년도 국가직 일반행정 9급과 서울시 일반행정 9급을 최종합격하여 현재는 인사혁신처 산하기관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일어일문학이라 일본 인턴을 1년 정도 하며 해외 취업을 생각 해봤으나 코로나 시국과 겹치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공무원 수험 준비 기간은 2년 정도(초시 불합격한 뒤 6개월은 공부 거의 못했지만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생활습관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시 때는 멋도 모르고 그저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에 늦게 일어나서 독서실에 도착해 아침 11시가 다 돼서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두시까지 공부한다고 앉아 있기는 했지만 정작 순수 공부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활습관과 패턴이 있겠지만 시험시간에 맞춰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져야 생활패턴을 바꾸려 하다보면 컨디션 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합격 후에 같은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1년을 공부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이 많이 들었고, 웬만하면 단기합격을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합격에는 실패했고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에 생활반경을 아예 바꿨습니다. 서울에서 4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굳이 장소를 옮긴 만큼 더 열심히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서울버스는 아침 6시 반 전에 타면 20프로 할인이 되는 조조할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여섯시에 일어나서 꼭 여섯시반 전에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작은 목표가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지고 성취감도 들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부를 하러 가는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본인만의 작은 미션이 있는 것이 팍팍한 수험생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거의 자습학원에 1등으로 도착해 그 전날 만들어놓았던 토스트를 먹으며 그 전날 끝내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국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시험이 4개월 정도 남은 시기라 국어 모의고사를 한 회 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9시가 되기 전에 스

트레칭을 하거나 양치를 하면서 잠깐 쉬며 본격적인 공부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기에 따라 과목에 따른 공부 시간 분배가 달랐지만 통상적으로는 11시 이전까지 국어 공부를 끝내고 3~4시쯤까지는 영어를 했고 한국사는 공부를 많이 해둔 상태였기에 동형 모의고사나 하프모의고사를 풀고 개념을 복습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 먹고는 선택과목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만 해도 선택과목제도가 있어 국어, 영어, 한국사의 비중이 훨씬 중요했기에 이렇게 했지만 현재 공무원 시험은 선택과목제도가 폐지되고 5과목이 전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2주 정도 앞두고는 아침 10시부터 혼자 실제 시험보듯이 OMR까지 작성하면서 동형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취업이 힘든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공무원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셨기에 제가 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일단 합격만 하라고, 경쟁률이 낮은 직렬이라도 합격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된 지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의 꿈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실제로 공무원이 되고 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자기 성격에 맞는 직렬과 자기 성적에 맞는 시험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시험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는 것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길을 잘못 들지는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 믿고 출구를 향해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합격이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했고, 확신하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미 합격을 한 상황에서 공부했던 때를 돌아보니 기억들이 미화가 많이 되었지만 저도 거의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지쳤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초시 때는 합격 수기도 많이 찾아보고 동기부여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재시 때는 별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을 때나 무기력할 때는 바깥 공기를 잠깐이라도 마시러 나갔었습니다. 바깥공기를 마시며 걷다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는 등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현실직시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부의 성지인 노량진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종류의 수험생들과 마주했습니다. 어제 술을 마셔 아무것도 못했다고 스트레스라는 수험생, 머리를 너무 안 감아서 머리가 떡진 수험생, 절대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보며 정말 멋있어 보였던 사람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도 쓰지 않고 본인 공부에만 몰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어도 이 건물에서는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목표를 세웠고 저는 저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노력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자는 마음만 가지고 합격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여 합격을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해 보이는 합격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

도 아닌 시험일지 모르지만 남들의 시선이 어떻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대학생활과 동떨어져있다는 편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전공을 고려 받아 현재 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험과 경력들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니 항상 본인이 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제 합격 수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제 성적과 과목별 공부방법들을 담았습니다.

<성적>

2020지방직(광역 교행): 85 90 95 80 75-> 불합격

2020국가직: 75 85 90 80 85-> 불합격

2021국가직: 95 95 95 90 85(행정부/사회)-> 합격

2021서울시: 95 80 100 90 95 -> 합격

<국어/ 영어/ 한국사 공부법>

실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 사실적으로, 편하게 썼습니다.

국어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2019년만 하더라도 비문학에 대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때라 저는 비문학을 무작정 풀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때는 비문학에 대해 저 또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능국어 에서 4등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비문학에 대해 무지했고, 국가직에서 75점을 맞음으로서 비문학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독해 알고리즘이라는 교재를 소개해 주었고 이미 비문학에 대한 고민으로 지쳐있었던 저는 이유진 선생님의 알고리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중도하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을 때 저는 그 책을 다시 꺼내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진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백일기도를 알게 되었고, 백일기도를 라이브로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제 합격에 이유진 선생님이 계셨던 것이 이 이유에서입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 국어에 대해 갈피를 못잡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백일기도를 현강으로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송출되는 라이브를 듣기 위해 저는 학원에 거의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국어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골라도 답은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조금 난도 높은 지문은 읽기도 전에 틀릴 거란 생각이 들어 아예 풀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독해 알고리즘을 체화하면 내가 어떤 정신으로 풀어도 팬터치만 잘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직에서 한 문제 틀린 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틀리지 않

던 부분이었는데 마지막에 등한시 하다 보니 정작 시험에서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애써 피하며 무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나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어법은 기본-심화-어법 강의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저 혼자 따로 풀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만큼은 그렇게 기출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출은 그냥 한번 푸는 선에 그쳤습니다. 사실 영어에 대해서는 내놓을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어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던 만큼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모든 파트를 고루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휘/어법/독해 크게 이 세가지중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법은 노랑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시든 본인의 교수법이 있을 겁니다. 그 분을 믿고 어법 책 하나를 정해서 계속해서 회독하다 보면 점점 틀리는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어휘는 답이 없습니다. 그저 외우는 것이라고밖에... 사실 단어장에 있는 많고 많은 어휘에서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모르는 것이 나와도 소거로라도 풀 수 있게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외울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아는 것 같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책 하나를 계속 회독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닌데 안다고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종이 하나를 펼쳐놓고 한글로 단어 뜻을 쓰고 내가 정말로 이 단어를 아는 것이 맞나 끊임 없이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해는 사실 저도 아직 합격법에 대해선 말할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꾸준히 하는 것 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프라도 매일 매일 풀고 해석 못하는 문장은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그러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프만 계속해서 푸는 것은 비추합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편이라면 20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영어 20문제를 포함해서 100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시험이 어느정도 가까워졌다면 꾸준히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난이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해놓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점수가 말해주듯 국가직 시험 이후 동형 5,6회 정도 밖에 풀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15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결과는 점수로 남습니다. 영어는 정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한국사도 결국은 회독. 회독입니다. 저도 초시때는 한국사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고, 이 말도 안 되게 많은 것이 내 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됩니다. 본인의 뇌는 생각보다 영특합니다. 비록 뇌까지 들어가기 까지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지만 결국엔 내 것이 될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렇기에 전적으로 본인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백지에 필기노트내용을 전부 써보는 식으

로 공부를 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공부법은 객관식 시험에서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결국 어떤 지식을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부단한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덜 고통스러우니까요. 저는 어느정도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고 기출을 한두 번 회독했을 때, 저만의 암기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만이 조선을 일구사(BC194)/ 망한전주효심이 지극한 만적(망이망소이-전주관노-효심김사미-만적의난)/이뵤폐최강언년이나(이비폐좌의난 최강수의난 이연년형제의난) 이렇게 본인의 암기법을 조금씩 첨가해주면서 공부를 하면 재밌기도 하고 기억에도 남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시 때는 이미 한국사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개념강의를 듣진 않았고, 동형강의를 들으면서 개념회독을 계속 하였습니다. 기출도 다시 사서 다섯번 정도는 다시 본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뭐니뭐니해도 필기노트 회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노트라는 책이 뇌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회독하십시오. 그러면 한국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